

【성철평전 북콘서트 영상메세지】

시대를 뛰어넘는 가르침을 이렇게 생생하게 만나게 되어, 청명한 지혜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어려운 사회현실과 우리의 삶에 자애로운 선물을 주신 김택근 작가님과 도서출판 모과나무에 깊은 고마움과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이만큼 흐르고 급변하는 사회이다 보니, 스님의 소중한 자취 또한 헤아리기 쉽지 않은 듯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철평전은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불사입니다.

희망과 밝은 미래는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일상에 지쳐 공허하고, 불안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님의 법향은 큰 희망이 되어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기를 바로 보고, 남몰래 남을 도우며, 남을 위해 기도하라시던 가르침은 매서운 경책을 넘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따뜻한 격려가 되어줄 것입니다.

현대인들과 스님의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신 오늘을 거듭 축하하며, 성철평전이 전해주는 지혜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지러운 현실을 밝게 헤쳐나가길 기원합니다.